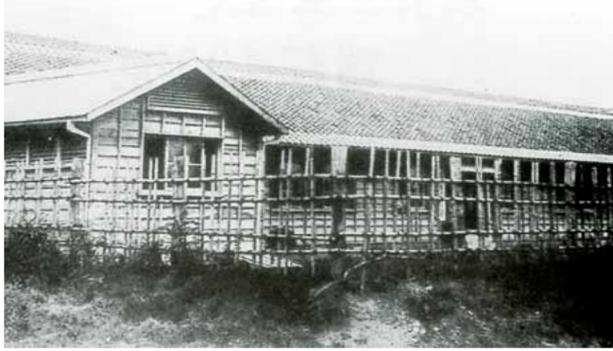




1940년대 한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졸업식 사진.



1917년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했던 광주보통교 당시의 교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석초 야구부의 1947년 모습.

근대 공교육 태자리...한국 교육사 거목으로 성장

광주, 시간속을 걷다 〈32〉 1896년 서석초등학교



어릴 적 다니던 초등학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학교 다닐 땐 운동장이며 학교가 참 넓었던 거 같은데... 어른이 돼 다시 와보니 아주 작네.” 서석초등학교에 들어섰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 학교 졸업생은 아니지만, 어릴 적 자주 놀러 다니곤 했던 학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작다.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공립초등학교인 서석초는 지역 공교육 역사를 품고 있는 학교로 올해 딱 120살이 됐다. 서석초 뒤를 이어 일본인들이 주로 다녔던 중앙초(1907년), 수창초(1921년), 지산초(1923년), 광주동초(1926년), 효동초(1929년) 등이 문을 열었다.

학교에 들어서니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띈다. 붉은 벽돌 건물들은 찬찬히 들여다 보면 축조 방식 등이 인상적이다. 울퉁불퉁 벽돌을 쌓아올린 모습이 독특하고 아치형 창문은 유럽의 건물을 떠올리게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2년 본관과 강당, 별관을 등록문화재 제 17호로 지정했다.

서석초는 일제 강점기, 6·25, 4·19 등 대한민국 역사와 한국 교육사를 그대로 품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학교 이름이 7차례나 바뀌며 시대의 흐름을 보여 준다. 서석초는 1896년 11월 6일 문을 연 전라남도 관찰부 공립소학교가 출발이다. 당시 을미개혁 일환으로 공포된 ‘소학교령’에 따라 출석생수 40인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국고금 50원 이내를 지원해줬다. 1906년 공립광주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꿨고 서석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단 건 1950년이다.

서석초가 현재 자리로 옮겨 온 건 지난 1927년이다. 처음엔 광주시 구동 향교 내 사마재(司馬齋)를 임시 교사로 사용하다 1907년 동문로 옛 광주일보 자리에 터를 잡았다. 개교 당시에는 3년제로 운영되다 1906년 4년제로 개편됐고, 지금과 같은 6년제가 시작된 건 1922년이다.

지난 1996년 서석초와 총동창회가 발간된 ‘광주 서석 100년사’(편찬위원장 최승호)에는 3·1운동과 관련, 이런 대목이 나온다. “1919년 광주보통학교 4학년으로 급장이었던 17세 최영섭군이 4월 8일 오전 10시 자해의원(현 전남대 부속병원) 앞에서 집합,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하지만 3·1 만세운동은 여의치 못하고 최영섭군은 이후 계속 독립운동에 가담, 경찰의 고문과 실형을 받아 나이 33세에 꽃다운 인생을 마감했다.”

1950년 6·25가 터지고 북한군이 광주에 주둔하면서 학교는 무기한 휴교에 들어간다. 당시 강용수 교장은 학적부와 졸업대장을 서류상자에 넣어 가마니로 포장, 학교 뜰에 파묻어 두었다가 북한군이 물러간 후 다시 꺼냈고, 11월 1일 다시 문을 열었다. 그해는 학교가 전남지구 전투사령부로 사용되면서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다.

책에는 졸업생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1943년 입학해 39회 졸업생인 김양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마분지를 만들기 위해 말뚝을 주우러 다녔던 기억, 식량 공출 때문에 쌀밥이 귀해 학교에서 배급해주는 ‘뽕표’를 유용하게 썼던 이야기, 일본인 ‘아닷지’ 선생이 근대 소집영장을 받고 떠나자 광주역전에서 출정 환송 행사를 했던 기억들을 풀어놓았다. 교과목도 변화 과정을 거쳤다. 1907년 일본어 과목이 신설됐고 1910~21년에는 수산, 국어(일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 등을 필수로 공부했다.

조옥형 교장과 함께 본관 2층에 자리한 서석역사관에 들었다. 초창기부터 쓰던 탁자, 책상, 난생 처음 본 스타일의 풍금 등이 눈길을 끈다. ‘뽕표’ 소리를 내던 학교종 대신 ‘당동명’ 음정을 내는 학교종



올해 개교 120년을 맞은 광주 서석초등학교는 광주·전남 지역 공립교육의 역사이기도 하다. 1927년 화재로 소실된 후 1935년 신축한 본관은 2002년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했으며 하늘을 향해 높게 솟은 교목 히말라야시다는 서석초등학교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듯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립소학교 시작...일제 강점기 등 겪으며 교명 7번 바껴 동문로 옛 전남도청 인근 등 거쳐 1927년 현재 위치로 120년간 5만2553명 졸업...7500명이던 전교생 173명 역사관·생태숲 꾸민 교정 졸업생·시민 등 발길 이어져



역사를 담고 있는 학적부.

도 인상적이다.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 학교를 찾는 이들이 많다. 얼마 전에도 졸업생들이 찾아와 기념 사진을 찍고 갔다. 역사관에 놓인 방명록엔 ‘옛 추억을 더듬으며 6학년 1반 교실에서-41회 졸업생’이라는 글귀가 쓰여있다. 한장 한장 넘겨 본다.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는 이인석씨는 1954년~60년까지 다녔던 학교를 추억하는 글을 남겼고, 1953년 졸업생으로 미국 데릴랜드에서 다녀간 이는 ‘세계 최고 나의 모교’라고



역사관에 전시된 독특한 스타일의 풍금.

썼다. 교무실 옆 공간에 보관된 낡은 학적부는 학교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세월의 티끌이 그대로 묻은 학적부는 조심해서 만지지 않으면 금방 바스러질 것 같다. 1930년 학적부에는 수우미양가 대신 과목 별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가 매겨져 있고 국어, 직업, 체조 등의 과목이 눈에 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도 빼곡하게 담겨 있다. 원본 일부는 정부 기록물보관소가 소장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둥없는 208평 대강당 ‘85살’ 본관·‘83살’ 별관 등록문화재 지정

서석초 건물은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문화재청은 2002년 본관, 강당, 별관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중 가장 오래된 강당은 1930년에 지어졌다. 208평 건물 내부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은 넓은 공간이 특징으로 당시 전국의 명물이었다고 한다. 강당은 산업화로 학생수가 급증했던 1970년대 칸막이를 해 교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본관은 1935년 지어졌다. 1927년 건축한 본관이 화재가 나면서 그 자리에 다시 지은 건물이다. 본관은 근대 벽돌 건축의 조형미를 엿볼 수 있는 건물로, 당시 가장 품질 좋은 수입산 목재와 특수 벽돌을 사용하여 지었다고 한다. 동근 부분에 딱맞는 맞춤벽돌로 지어 외관도 인상적이다. 실내는 아쉽게도 올해 바닥 공사를 진행해 옛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1943년 지어진 별관은 현재 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측은 재학생들에게 학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매년 ‘서석 빛고을문화재 지킴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그림, 사진 등 작품은 염서로 제작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